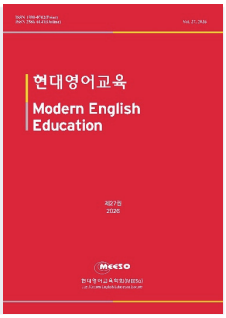
Modern English Education, Vol. 27, (2026) pp. 34-45
doi: https://doi.org/10.18095/meeso.2026.27.1.34

Modern English Education

ISSN: 1598-0782 / e-ISSN: 2586-6141
http://journal.meeso.or.kr



비정형 *because* 구문에 대한 한국인 EFL 학습자의 인식 변화: 사용기반 노출이 문법적 수용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 (국립공주대학교)
전문기 (건국대학교)

Received: 31 December 2025
Revised: 18 January 2026
Accepted: 24 January 2026

Lee, Jihye, & Jeon, Moongee. (2026). Shifts in Korean EFL learners' awareness of non-canonical *because* constructions: The effect of usage-based exposure on grammatical acceptability judgm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27*, 34-45.

Keywords
because + X construction,
non-canonical constructions,
Korean EFL learner,
usage-based grammar,
discourse-based variation
because + X 구문,
비정형 구문,
한국인 EFL 학습자,
사용기반문법,
담화 기반 변이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Korean EFL learners' judgments of the grammatical acceptability of non-canonical *because* + *X* constructions change, using a usage-based grammar framework. It tested the hypothesis that acceptability judgments are not fixed by traditional rule-based knowledge but can shift through repeated exposure to authentic usage in different discourse contexts (academic/curriculum versus SNS/everyday). The study involved 58 learners, evenly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 = 29), which received exposure materials, and a control group (n = 29). Pre-test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dicating that learners initially viewed *because* + *X* constructions as ungrammatical. However, post-test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experimental group giving higher acceptability rating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peated exposure to authentic usage examples changed the experimental participants' perceptions of grammatical acceptability, leading them to recognize the non-canonical *because* + *X* construction as grammatically valid. The results offer valuable insights for developing English curricula and instructional materials in educational settings.

Jihye Lee (First author)
Lecture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yjh2488@naver.com

Moongee Jeon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mjeon1@konkuk.ac.kr
ISNI: 0000 0004 6323 2183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25.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서론

언어는 고정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반복적 사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기적 체계이다. 최근 언어 연구에서는 문법을 선험적 규범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실제 사용의 빈도와 맥락적 적합성이 구조 형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용기반적 관점을 중심으로 언어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영어의 통사, 담화적 요인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는 현상 역시 이러한 사용 경험의 축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특히 인터넷 기반 담화는 언어 형식이 사회적 기능을 기준으로 재구조화되고, 비정형적(reduced) 표현이 새로운 구성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담화의 구조적, 사회적 특징을 분석한 Androutsopoulos(2014)의 논의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온라인 담화가 전통적 문법 규범보다 상황적 적합성, 상호성, 즉각적인 성격을 더 강하게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축약, 변형, 재구조화된 표현들이 일상적 언어 사용의 일부로 정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적 압축과 전략적 변형은 특히 SNS, 메신저, 댓글 기반 상호작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Tagliamonte & Denis, 2008). 그들의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영어 변이가 단순한 파괴적 사용이 아니라 새로운 담화 규범의 형성 과정임을 보여주며 빈번한 노출과 사회적 확산을 통해 특정 비정형 구문이 하나의 생산적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담화 기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은 Traugott와 Trousdale(2013)의 구성문법 기반 문법화(constructionalization)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정립된다. 그들은 언어 변화가 단순한 형태 축약이 아니라, 의미, 기능, 사용 맥락이 통합적으로 재조직되는 과정이며, 자주 사용되는 특정 패턴은 점차 새로운 구성으로 정착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because 뒤에 절이 아닌 명사나 형용사구가 결합하는 이른바 because + X 구문이 예외적 활용이 아니라, 반복적 사용과 담화 기능에 기반한 구성적 확장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제로 최근 The Guardian의 칼럼에서 Ben Zimmer는 because 뒤에 of가 생략되거나 완전한 절 구조를 이루지 않은 표현(예: because science, because reason)이 자연스러운 담화의 일부로 정착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Flood, 2014). 이러한 현상은 비정형 구문이 문법적 결함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를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담화 전략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Hilpert(2019)는 구성문법을 기반으로 실제 영어 자료에서 나타나는 구문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변화의 핵심 동인을 빈도 증가, 기능적 동기, 사회적 확산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구문 변화가 개별 화자의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반복적이고 기능적으로 사용되며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패턴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because + X 구조 역시 SNS와 일상 담화의 높은 빈도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형 구문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관점은 Rickford와 King(2016)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언어적 판단이 규범적 정확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화자의 사회적 정체성, 담화 목적, 맥락적 기대치가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이는 학습자가 비정형 because 구문을 평가할 때 단순 규칙 위반 여부가 아니라, 특정 담화 유형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기능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영어의 문법 구조가 담화적, 기능적 요구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더 넓은 코퍼스 연구에서도 지지된다. Biber와 Gray(2016)는 현대 영어, 특히 학술 담화에서 명사 중심의 압축적 구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문장 성분의 완전성을 중시하는 규범적 모델보다 실제 사용의 효율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어 구조의 전반적 경향은 because 구문의 축약과 같은 비정형적 형식도 특정 담화에서 효율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정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문법 인식에 관한 인지적 관점은 Amaral과 Roeper(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들은 학습자가 새로운 구조를 처음 접할 때 규범적 지식에 기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지만, 빈번한 노출과 의미적 유추(analogy)를 경험하면서 판단 기준이 점차 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사용기반문법에서 강조하는 빈도 기반 학습(frequency-based learning)과 정확히 일치하며 학습자의 판단 변화가 단순한 암기나 규칙 습득이 아니라 인지적 재범주화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영어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구문을 문법 규칙의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학습자들은 실제 언어 사용 환경에서 비정형적 표현을 자주 접하지만 교재나 수업에서는 이를 오류로만 인식하도록 학습한다. 이러한 차이는 문법 지식과 언어 사용 사이의 틈을 드러내며 학습자의 언어 인식과 수용성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because 구문의 통사적 구조나 인과 관계의 의미론적 기능에 초점을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두었을 뿐(Bybee, 2006; Nunberg, 1990), 비정형적 변이에 대한 인식이나 수용성 변화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드물다. 이는 문법을 여전히 규범적 지식으로 한정하는 전통적 접근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용기반문법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한국인 EFL 학습자가 비정형 because 구문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를 노출 빈도와 맥락적 판단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문법적 판단이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언어 사용 경험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EFL 학습자는 비정형 because 구문을 문법적으로 '비문'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허용 가능한 표현'으로 인식하는가?
2) 실제 사용 예시의 반복적 노출이 학습자의 문법 판단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가?
3) 이러한 판단 변화가 구문 형태(정형/비정형)와 담화 유형(학술, 교과/SNS, 일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본 연구는 비정형 구문을 단순한 오류로 여기지 않고 언어 사용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조정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영어 문법 교육이 규범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과 인지 과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시하려 한다.

이론적 배경

사용기반문법의 이론적 토대

사용기반문법(usage-based grammar)은 언어를 고정된 규칙 체계가 아닌 반복적인 사용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인지적 산물로 이해한다. 이 접근은 문법을 선험적으로 주어진 규범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생성문법적 관점과는 달리 실제 담화에서 관찰되는 사용 빈도와 맥락적 제약이 문법 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이끈다는 점을 강조한다(Bybee, 2006; Ellis, 2002). 즉, 문법은 규칙 적용의 결과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해석한 언어 사용의 흔적이 인지 체계에 축적된 결과로 이해된다. 언어의 구조는 사용 빈도와 의미적 결합이 누적되어 형식화된 결과이고 사용의 경험이 문법의 형성을 이끈다.

Bybee(2010)는 사용기반 관점을 인지적 메커니즘의 고착화 과정으로 설명하며 언어 구조가 빈도(frequency)와 도식화(schematization)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정 구문이 반복적으로 사용될수록 형태와 의미의 결합이 강화되고 처리 과정에서 분석 대상이 아닌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높은 빈도는 자동화(automatization)를 촉진하고 반복된 결합은 정형화(conventionalization)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동화 과정은 문법이 명시적 규칙의 적용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누적을 통해 내재적으로 구조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Bybee(2010)는 빈도 효과를 특정 표현 빈도(token frequency)와 유형 빈도(type frequency)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특정 표현 빈도는 특정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구문의 관습화와 인지적 고착화를 촉진한다. 반면, 유형 빈도는 동일한 구조가 다양한 어휘적 변형을 통해 실현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는 해당 구문의 도식화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표현으로의 확장을 유도한다. 또한, 문법성을 이분법적 범주로 파악하는 관점을 비판하며 문법적 수용성을 연속체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정 구조가 문법적인지의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사용 빈도와 담화 맥락에서의 친숙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문법 판단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익숙하고 기대 가능한가'의 문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본 연구의 비정형 because + X 구문의 수용성을 연속적인 판단 차원에서 분석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Ellis(2002)는 사용기반 관점을 학습자의 판단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를 언어 학습 이론으로 확장하며 언어 습득을 입력과 빈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확률적 패턴 학습 과정으로 설명한다. 학습자는 규칙을 명시적으로 습득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노출된 형태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유사한 맥락에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문법 지식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입력의 빈도와 분포는 학습자의 문법적 판단 기준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설명은 실제 사용 예시에 대한 반복 노출이 학습자의 문법적 수용성 판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Langacker(1987)의 인지문법 역시 문법을 사용 경험에 기반한 의미의 도식화된 확장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사용기반문법과 이론적 맥락을 공유한다. 그는 언어 구조를 규칙이 아닌 사용 패턴의 인지적 일반화로 설명하며 문법적 형식과 의미가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적으로 저장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비정형 구문 역시 특정 담화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안정적인 문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Croft(2001)는 언어 구조를 고정된 통사 범주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사용에서 관찰되는 형식과 기능의 결합 양상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중심으로 문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법적 단위는 상위 규칙에 의해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구성으로 정의된다. Croft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형식들이 공존하는 현상을 문법의 주변부가 아닌 핵심적 특성으로 간주한다. 어떠한 담화 환경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가 문법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법을 독립적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반복적 경험과 언어 공동체 내 상호작용 속에서 안정화되는 인지적 네트워크로 보았다.

Tomasello(2003)는 사용기반접근을 사회인지적 관점으로 확장하여 언어가 화용적 상호작용과 의도 공유(intentionality sharing)를 통해 습득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언어 학습이 의도 공유와 같은 사회인지 능력에 기반한다고 보았다(Ha, 2008). 화자는 발화의 형식 자체보다 상대방의 의도와 맥락을 우선적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선택될 때 해당 구조는 하나의 안정된 구성으로 인식된다. 이 과정에서 문법적 정형성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의미 전달의 효율성과 상호 이해 가능성에 의해 조정된다.

요약해 보자면 사용기반문법의 핵심 가정은 언어 구조가 빈도, 도식화, 그리고 담화 맥락의 누적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데 있다. 이 접근은 문법을 고정된 규범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형성과 비정형성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구성문법(Construction Grammar)과 사용기반 접근

구성문법(construction grammar)은 문법 지식을 규칙의 집합으로 보지 않고 형식(form)과 의미(meaning)의 결합인 구성(construction)으로 이해하는 틀이다. Goldberg(1995)는 구성을 어떠한 형태나 기능이 전체에서 예측되지 않는 경우 혹은 그 결합체가 관습화되어 화자에게 하나의 단위로 저장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언어 지식으로 정의하며 이를 통해 관용구 이외에도 일반적인 구문 패턴까지도 구성이라는 단위로 포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관점에서 문법은 추상적 규칙이 문장을 생성하는 장치가 아니라 화자가 경험을 통해 축적한 구성들이 서로 연결된 지식의 저장고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Goldberg(2005)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확장하여 단어, 구, 절 그리고 담화 수준의 표현을 모든 구성의 연속선상에서 설명한다. 특히 그는 언어의 생산성을 규칙적용으로 환원하지 않고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구성들을 바탕으로 유사성을 기반으로 일반화와 확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여긴다. 즉, 구성 네트워크(constructional network)는 개별 구성이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위, 하위 관계와 의미적 익숙함과 형태적 유사성에 따라 연결된 체계이며 화자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때 구성 간의 연결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 경험이 축적되며 점차 강화되는 인지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구성문법이 제공하는 중요한 장점은 문법 현상을 형식만으로 혹은 의미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구문은 단순히 통사적 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구문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온 의미 기능이 함께 저장된다. 예를 들어,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because 구문은 전통적으로 'because + 절'의 형태로 기술되지만 구성문법의 관점에서는 인과 의미를 구현하는 구성군(construction family) 내에서 하위 유형들이 존재 가능하다. 'Because + NP' 혹은 'because + adj'와 같은 비정형 용법도 규칙의 위반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인과 의미를 수행하는 구성적 자원의 확장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문법은 사용기반 접근과 맥락을 함께한다. 사용기반문법이 빈도, 경험, 그리고 도식화 과정을 통해 문법이 형성된다고 보는 반면, 구성문법은 그러한 결과물이 형식과 의미의 결합이라는 단위로 체계화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Goldberg(2005)는 학습자가 입력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바탕으로 구성을 추출하고 이후 새로운 표현을 이해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구성과의 유사성을 결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는 규칙을 먼저 배우고 예문을 적용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학습자는 오히려 예문과 용례를 통해 구성적 패턴을 형성하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일반화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Goldberg(2005)는 구성의 경쟁과 선택을 통해 언어 내 변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이 여러 개 존재할 때 화자는 담화 목적, 처리의 효율성, 맥락적 기대에 따라 특정 구문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because + X 구문이 특정 담화 유형(SNS, 일상 대화)에서 더 자연스럽게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인식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Goldberg(2005)가 구성 네트워크의 구조와 생산성을 중심으로 구성문법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면 Diessel (2013)은 이러한 구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습득되고 강화되며 변화하는지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그는 구성의 습득과 확장이 개별 문장의 분석이 아니라 담화 속 반복과 기능적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구성문법과 사용기반 접근을 학습 이론의 차원에서 연결한다. Diessel에 따르면 학습자는 입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를 독립된 규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용례를 패턴화하여 먼저 저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패턴은 이후 유사한 담화 환경에서 재사용되며 점차 더 일반적인 구성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는 빈도와 담화이다. 특정 구문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특정 의미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경우, 학습자는 해당 구문을 하나의 구성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문법 구조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용기반문법의 가정과 일치한다. Diessel은 구성 간의 관계를 위계적 규칙 체계로 설명하기보다 사용 빈도와 기능적 유사성에 따라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학습자는 기존에 형성된 구성과 새로운 구성은 경쟁하거나 공존이 가능하며 특정 담화 환경에서 더 자주 선택되는 구성이 인지적으로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이 논의는 구성문법이 제시하는 형식과 의미 결합의 개념을 학습과 변화의 과정으로 확장하여 사용기반 접근이 강조하는 빈도와 담화 맥락의 역할을 구체적인 인지 체계로 연결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비정형 구문이 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특정 담화 조건에서 기능적으로 선택되고 강화되는 구성임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Perek(2023)은 언어 체계 전체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작용하는지를 보다 동적이고 확률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Perek은 구성문법을 고정된 목록이 아닌 '경쟁과 지속적 선택의 확률적 네트워크'라고 설명하며 개별 구문의 사용 빈도와 분포가 문법적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화자는 특정 의미를 표현할 때 단일한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이미 경험한 여러 구성 중에서 맥락적으로 가장 기대 가능성이 높은 구성을 선택한다. 이때 문법적 판단은 절대적인 허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구문이 해당 맥락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은 문법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수용성을 연속적인 판단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용기반문법의 핵심 가정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구성 간의 변화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빈도와 담화 환경에서의 기능적 적합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하였는데 반복적으로 선택되는 구성은 인지적으로 강화되고 더 적게 선택되는 구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형 구문과 비정형 구문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특정 맥락에서 서로 다른 확률로 선택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는 'because + 절'과 'because + X'가 동일한 인과 기능을 수행하지만 담화 유형에 따라 상이한 수용성을 보이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정형과 비정형 구문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적 구성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because 구문의 경우 전통적으로 규범화된 절 구조 이외에도 축약된 비정형 형태 역시 특정 담화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비정형 구문의 담화적 확장과 수용 인식

최근 영어 담화에서 관찰되는 비정형 구문은 문법 규칙의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담화 환경과 사용 목적에 따라 형식이 재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접속사 because의 축약된 용법(예: because tired, because reasons)은 인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현상은 언어 변화와 담화 기능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비정형 구문의 담화적 확장 과정과 이 구조가 어떻게 수용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Nunberg(1990)는 이미 언어의 규칙적 구조보다 실제 사용에서의 창의적 확장이 의미 해석에 더 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because tired'나 'because reasons'와 같은 표현이 비문이 아니라 화용적 기능을 지닌 실질적 구성임을 시사한다.

Traugott(2015)는 'because + X'의 구조를 담화 기반 구성변화(discourse-based constructional change)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며 해당 구문이 전통적인 종속절의 표지에서 벗어나 담화적 연결 장치로 기능을 확장해 왔다고 설명한다. 그는 언어 변화가 문장 내부의 통사적 재구성에서 출발하기보다는 화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담화 전략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식화된다고 보며 이 변화를 구성화(constructionalization)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because tired, because reason’과 같은 표현은 절의 생략으로 설명되는 것보다는 화자의 태도나 인과 관계를 간결하게 제시하려는 담화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로 이해 가능하다. Traugott는 이와 같은 변화가 우연적 문법 일탈이 아닌 특정 담화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안정화된 구성의 확장임을 강조한다.

Hilpert(2013)는 이러한 담화 기반 변화 과정을 구성 변화(constructional change)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구성 변화가 개별 요소의 탈락이나 추가로 설명되기보다는 기존 구성과 새로운 구성 간의 사용 분포 변화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특정 구문이 점차 더 많은 맥락에서 선택될수록 그 구성은 인지적으로 강화되고 기존의 정형 구조와 공존하는 대안적 표현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Hilpert의 관점에서 ‘because + X’의 구조는 기존의 ‘because + 절’의 구조를 대체하기보다는 담화 환경에 따라 선택 가능성이 조정되는 하위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Hopper와 Traugott(2003)는 문법 변화를 고정된 규칙체계의 붕괴가 아니라 반복된 담화 전략이 점진적으로 관습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은 문법화를 개별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화자가 특정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한 표현이 담화 속에서 반복되며 점차 안정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문법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규범이 아니라 실제 사용에서 습득된 선택들이 누적되어 형성된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담화 맥락을 문법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여겼는데 화자의 표현 선택이 처리 효율성, 정보 구조, 상호작용적 요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 관점으로 ‘because + X’와 같은 구문은 규칙의 부재가 아니라 담화 전략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진행 중인 구성 변화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의 수용성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Christensen과 Nyvad(2024)는 다양한 구문 유형을 대상으로 사용 빈도와 수용성 판단 간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분석하며 반복적으로 노출된 구조일수록 비문법적 판단이 완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문법적 수용성이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경험에 따라 조정되는 연속적인 인식임을 강조하며 특히 비정형적인 구조일수록 노출 효과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사용기반문법과 구성문법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입력 경험이 학습자의 문법 판단 기준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최근 Kanetani(2022)는 ‘because + X’ 구문을 단순한 축약형이나 비문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화자의 인지적 상태와 담화 전략을 반영하는 화용론적 구성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는 이 구문이 완결된 논리적 인과를 제시하기보다는 화자가 이미 공유된 맥락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이나 태도를 간결하게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Kanetani는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한 수용성 판단 실험을 통해 ‘because + X’ 구문이 비공식 담화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공식 담화에서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이 결과는 문법적 허용성이 절대적인 규칙의 적용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담화 유형과 상호작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해당 구문의 수용성은 문법적 판단보다는 담화 적합성과 기능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because + X’ 구문이 담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학습자 집단에서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Kanetani가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because + X’ 구문의 화용적 기능과 담화 적합성을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한국인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사용의 예시 노출이 이러한 구문에 대한 문법적 수용성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유도하는지를 실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참여자는 C지역 K 대학교 교양대학에 개설된 영어 관련 교과목을 수강 중인 학부생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며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해 온 학습자들로 영어 학습 경험 및 학업의 배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다. 학년 분포는 주로 1학년과 2학년에 해당한다. 전공은 사범, 인문사회, 자연과학계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교양 영어 수업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는 일반 학습자 집단으로 특정 문법 이론이나 비정형 구문에 대한 사전 경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무작위 배정을 통해 참여자를 실험집단 29명과 통제집단 29명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은 연령과 영어 학습 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구 개시 전 동일한 안내를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사용기반문법의 빈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설문, 노출 활동(실험집단에만 제시), 사후 설문의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순서로 설계되었다. 사전 설문은 참여자들의 문법적 정확성 판단 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특정 문법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 문장을 접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용 능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사전 설문의 응답 결과는 각 참여자가 정형과 비정형 구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이후 변화의 폭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하였다. 사후 설문은 사전 설문과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포함하되 단순 반복에 따른 학습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장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문장은 동일 유형의 새로운 예시로 대체하였다. 이것은 실험집단이 연구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특정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복 노출이 실제로 문법적 판단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반면, 통제집단은 노출 활동 없이 동일한 일정 속에서 사전, 사후 설문만을 수행하였다.

연구 자료 및 도구

본 연구의 실험 자료 및 평가 도구는 학습자의 비정형 구문 인식과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 사후 설문지, 수업시간에 실험집단에게 제시된 노출자료, 그리고 맥락 인식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용성 판단을 위한 설문 문항은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because + 절' 형태의 정형 구문과 'because + 명사구/형용사구'의 형태(예: because homework, because tired 등)의 비정형 구문이 각각 10개씩 포함되었다. 설문지에 사용된 문장은 일상 대화, SNS, 블로그, 학술 텍스트 등 다양한 담화 유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었고, 문장 길이, 어휘 수준 및 주제 친숙도는 문법 구조 외의 오염 변수들(confounding variables)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4점 Likert 척도(1=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4=매우 자연스럽다)로 평가하였다.

실험집단에 제시된 노출 자료는 실제 온라인 담화에서 수집된 'because + X' 구문을 기반으로 제작된 시각적 자료로 구성되었다. 인스타그램의 게시글, 트위터 코멘트, 블로그의 일상적 글, 메신저 대화 등을 모델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재구성한 자료이며 문법적 설명을 제공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맥락을 관찰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비정형 구문이 특정 담화 상황에서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접하였다.

사후 설문에는 문장의 형식과 담화 맥락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는 'because + 절/명사/형용사'의 세 문형이 각각 학술, 교과 담화와 SNS, 일상 담화, 혹은 두 영역 모두 중 어느 영역에서 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구문 형태와 담화 환경 사이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연구는 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통제집단은 노출 활동 없이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 두 단계로 진행되었고, 실험집단은 사전 설문, 노출 활동, 사후 설문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사전 설문을 통해 배경 정보와 함께 20개 문장의 문법적 수용성을 평가하였다. 사전 설문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같은 문항을 배포하였고, 참여자들이 정형 구문과 비정형 구문을 처음 접했을 때 각각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 설문을 통해 학습자가 비정형 because 구문을 본질적으로 비문으로 인식하는지 혹은 의사소통적 표현으로 허용하는지를 파악하여 이후 변화의 기준점으로 활용하였다.

실험집단은 수업 활동 중 연구자가 준비한 노출 자료를 관찰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노출 자료는 실제 온라인 담화에서 사용되는 비정형 'because + X' 구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각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SNS 게시글, 댓글, 메신저 대화, 블로그 글 등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각 자료에는 비정형 구문이 포함된 짧은 담화 맥락이 함께 제시되었고 참여자들은 이를 순차적으로 관찰하였다. 노출 활동은 약 30분간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각 예시가 사용된 담화 유형과 상황적 맥락을 간단히 안내하되 문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거나 규칙 설명은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형 because 구문이 구어적 문체나 온라인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여자들은 의미 해석보다는 문장의 형태적 특징과 실제 사용 양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료를 살펴보도록 안내받았다. 이러한 절차는 비정형 구문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실제 사용 예시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학습자의 문법적 수용성 판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계된 것이다. 통제집단은 노출 활동 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수업 활동을 진행하였다.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사후 설문은 노출 활동 일주일 후 실시되었으며 문항 순서를 무작위로 조정하여 사전 설문과의 단순 반복 효과를 최소화하였다. 참여자들은 20개의 문장을 평가했고 설문 후반에 제시된 맥락 인식 문항을 통해 각 문형이 어떤 담화 환경에서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지 선택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에는 R 4.4.3(R Core Team, 2025)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의 유의미한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수행하였다. 두 집단의 동분산성(Equality of variances)을 검증하기 위해 Levene 검정을 수행하였다. Levene 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통계적 검증력(Statistical power)을 조절하기 위해 수정된 자유도(Degrees of freedom)를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 수집된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문법적 수용성 변화와 구문 유형 간 판단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먼저 사전, 사후 설문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정형 구문과 비정형 구문의 수용성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T 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후 설문에 포함된 맥락 인식 문항을 분석하여 각 문형이 어떠한 담화 환경에서 더 자연스럽다고 인식되는지를 사용기반문법의 이론적 논의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본 연구의 사전 검사에 대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통계 분석 결과(FIGURE 1 참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 = .64, p = .523).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크기(effect size) 값도 r^2_{pb} = .02(2%)로 작았다. 일반적으로 T 검정에서는 점이연 상관 계수(point-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 r_{pb}) 값을 제곱한 값으로 효과크기 값을 산출하는데, 이 값이 .01(1%)에 가까우면 작은 효과크기, .09(9%)에 가까우면 중간 효과크기, .25(25%)에 가까우면 큰 효과크기로 간주된다(Cohen, 1988). Levene 검정 결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아서 동분산성이 가정되었다. 사전 검사 후에 실험집단에만 노출 자료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사전 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문법적 수용성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 값(통제집단 M = 2.49 vs. 실험집단 M = 2.44)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평균 값 모두 4점 Likert 척도 기준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처치(노출자료 제시) 전에는 비정형 'because + X' 구문을 비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이 시사된다(연구 가설 1 지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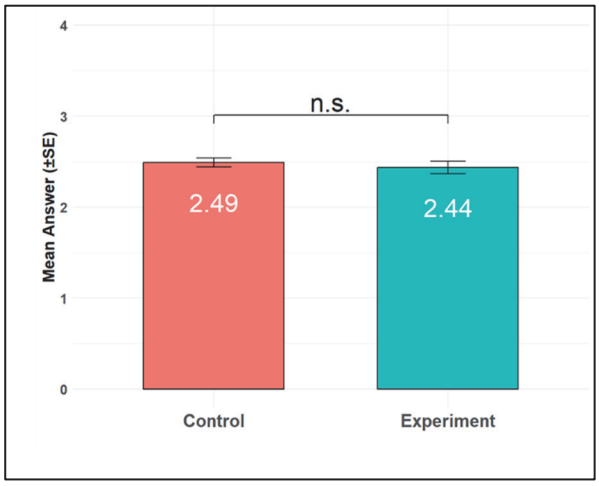


FIGURE 1
Mean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 Conditions for the Pretest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반면에, 사후 검사 분석 결과(FIGURE 2 참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t = -11.01, p = .000). 효과크기 값은 r^2_{pb} = .28(28%)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검사와 동일하게 Levene 검정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집단의 평균 값(통제집단 M = 2.68 vs. 실험집단 M = 3.47)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실험집단의 문법적 수용성 점수(4점 Likert 척도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사용 예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실험집단(노출 자료 제시된 집단) 참가자들의 문법적 수용 판단에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제시한다(연구 가설 2 지지 결과). 다시 말하면, 실험집단 참가자들은 실제 사용 예시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비정형 'because + X' 구문을 비문에서 수용 가능한 문장 형태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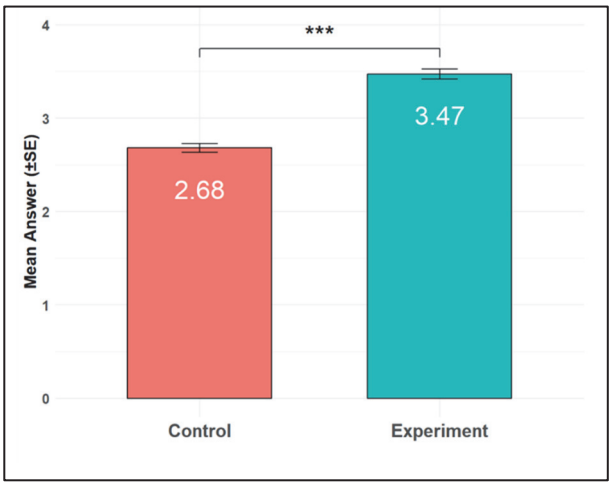


FIGURE 2
Mean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 Conditions for the Posttest

이러한 결과는 또한 표준 문법의 틀에서는 비정형 구문이 비문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사용기반문법의 관점에서는 수용 가능한 형태, 다시 말하면 언어적 창의성과 경제성의 산물로 간주됨을 제시하고(Bybee & Hopper, 2001; Goldberg, 2005) 구문 빈도가 수용성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Christensen & Nyvad, 2024). 또한, 학습자들이 명시적 규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시된 구문의 패턴을 인식한 후, 이러한 결과를 맥락적으로 유사한 구문에 확장하여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다(Ellis, 2002).

사후 맥락 인식 설문 결과

본 연구에서 사후 검사 후 실시된 학습자의 문법적 수용판단에 영향을 주는 담화 맥락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TABLE 1은 학술 및 교과, SNS 및 일상적 담화 맥락에서 정형 및 비정형 'because + X' 구문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TABLE 1
Results of the Post-Context Awareness Verification Test

Type	Group	Academic·Curriculum	SNS·Daily Life	Both
Because + Clause (Subject + Verb)	Experimental	17 participants (53.6%)	0 (0.0%)	12 participants (41.4%)
	Control	3 participants (10.3%)	2 participants (6.9%)	24 participants (82.8%)
Because + Noun	Experimental	0 (0.0%)	23 participants (79.3%)	6 participants (20.7%)
	Control	0 (0.0%)	28 participants (96.6%)	1 participant (3.4%)
Because + Adjective	Experimental	0 (0.0%)	22 participants (75.9%)	7 participants (24.1%)
	Control	2 participants (6.9%)	23 participants (79.3%)	4 participants (13.8%)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실험집단 학습자의 53.6%는 학술 및 교과 맥락에서 정형 'because + 절' 구문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SNS 및 일상적 담화 맥락에서 이 정형 구문을 수용하는 학습자는 없었고, 두 맥락 모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은 41.4%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실험참가자의 10.3%만이 학술 및 교과 맥락에서 정형 구문을 수용하였고, 두 맥락에서는 82.8%가 정형 구문을 수용하였다. SNS 및 일상적 맥락에서 수용한 실험참가자의 비율은 6.9%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집단의 실험참가자에 비해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because + 절'의 실제 사용 예시 구문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학술 및 교과 맥락에서 이러한 정형 구문을 더 많이 수용함을 제시한다. 두 담화 맥락에서 통제집단의 수용 비율(82.8%)이 실험집단의 비율(41.4%)보다 현저히 크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지지한다.

비정형 'because + 명사'와 'because + 형용사' 구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이러한 비정형 구문을 학술 및 교과 맥락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because + 명사' 구문에 대해 실험집단 0%, 통제집단 0%, 'because + 형용사' 구문에 대해 실험집단 0%, 통제집단 6.9%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에 비정형 SNS 및 일상적 맥락에서 'because + 명사' 구문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실험참가자의 비율은 실험집단 79.3%, 통제집단 96.6%, 'because + 형용사' 구문에 대해 실험집단 75.9%, 통제집단 79.3%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참가자들이 학술적 및 교과 맥락에서 비정형 구문을 대체로 수용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SNS 및 일상적 담화 맥락에서는 수용성 판단에 대한 일부 실험참가자들의 인식 변화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because + 명사' 구문에 대한 통제집단의 수용성 비율(96.6%)이 실험집단의 비율(79.3%)보다 높았다. 반면에 두 담화 맥락 모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실험참가자의 비율 값은 실험집단(20.7%)이 통제집단(3.4%)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이 비정형 'because + 명사' 구문의 실제 사용 사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러한 비정형 구문을 학술 및 교과 맥락에서도 수용 가능함을 제시한다(Bybee & Hopper, 2001; Goldberg, 2005). 비정형 'because + 형용사' 구문에 대한 분석 결과도 'because + 명사' 구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두 담화 맥락에서의 수용성 비율 값이 통제집단(13.8%)보다 실험집단(24.1%)에서 높았다. 이러한 결과 또한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이 'because + 형용사' 구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러한 비정형 패턴을 인식하여 수용 가능한 형태로 확장 및 일반화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Ellis, 2002).

결론

본 연구는 문법을 고정된 규칙 체계가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 경험과 빈도 기반의 패턴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인지적 산물로 이해하는 사용기반문법의 관점을 이론적 토대로 한다(Ellis, 2002). 구성문법은 이러한 관점을 확장하여 문법 구조를 형식과 의미가 결합된 구성들의 네트워크로 설명함으로써 정형과 비정형 구문을 규칙 위반의 문제가 아닌 구성의 선택과 담화 기능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Diessel, 2013; Goldberg, 1995; Perek, 2023). 더 나아가 담화 기반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비정형 구문이 화용적 요구와 표현 효율성에 의해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Hilpert, 2013; Traugott, 2015), 최근의 실증 연구는 반복적 노출이 구문의 수용성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Christensen & Nyvad, 2024).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비정형 'because + X' 구문이 문법 체계의 주변부가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험 설계를 통해 특정 구문에 대한 학습자의 문법적 수용성 판단이 전통적인 문법 지식에 기반해 고정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 맥락(학술 및 교과 맥락, SNS 및 일상적 맥락)에서 실제 사용 사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절차에 따라 사전, 사후 설문 분석을 수행한 결과, 먼저 사전 검사에 대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비정형 'because + X' 구문에 대한 문법적 수용성 정도에 대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실제 사용 사례에 노출되기 전에 실험참가자들은 비정형 'because + X' 구문을 비문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 대한 수용성 판단에 대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실제 사용기반의 예시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실험집단은 사후 검사에서 정형, 비정형 구문을 보다 유연하게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because + X' 구문에 대해 실험집단에 참가한 학습자가 판단한 문법적 수용성 점수가 통제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사용 예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실험집단 참가자의 문법적 수용성 판단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실험집단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학습자들이 명시적 규칙이 아닌 반복적으로 제시된 구문의 패턴을 인식한 후, 이러한 결과를 맥락적으로 유사한 구문에 확장하여 비정형 'because + X' 구문에 대해 문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Bybee & Hopper, 2001; Ellis, 2002; Goldberg, 2005). 이것은 실험집단이 비정형 구문을 단순한 규칙 위반으로 여기지 않고 담화 유형에 따라 표현의 효율성과 간결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용기반 접근에서 강조하는 빈도와 도식화(schematization) 과정이 학습자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반복 노출은 학습자의 인지적 접근성을 높이고 낯선 표현을 새로운 패턴으로 범주화하려는 일반화 과정이 이어지며 이 과정을 통하여 문법 판단의 기준이 점진적으로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문법적 수용 판단에 영향을 주는 담화 맥락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도 위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 특히 SNS 및 일상적 담화 맥락에서 비정형 'because + 명사' 구문에 대해 통제집단의 수용성 비율 값이 실험집단보다 높았고, SNS 및 일상적 담화 맥락과 학술 및 교과 맥락 모두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학습자가 이 비정형 구문의 실제 사용 용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이 구문을 학술 및 교과 맥락에서도 수용했음을 제시한다(Bybee & Hopper, 2001; Goldberg, 2005). 'because + 형용사' 구문에서도 두 담화 맥락 모두에서 실험집단의 수용성 정도가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 또한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이 'because + 형용사' 구문의 실제 사용 용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이 비정형 구문에 대한 그들의 수용성 정도에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시사한다(Ellis, 200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문법 교육에서 주변적이거나 오류라고 간주되었던 비정형 구문이 실제 언어 사용 맥락에서는 의미 전달의 효율성과 담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 관찰된 판단 변화는 문법 지식이 고정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학습자가 경험하는 입력의 양과 질, 즉 노출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인지적 특성을 지닌다는 사용기반문법의 핵심 전제를 학습자들의 반응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어 문법 교육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실험집단에서 관찰된 문법적 수용성의 변화는 실제 사용에 기반한 입력 노출이 학습자의 문법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명시적인 규칙 설명 없이 반복 노출을 통해 학습자가 비정형 구문의 사용 패턴을 내면화하고 이를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삼는 양상은 사용기반문법에서 제시하는 빈도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문법 지식이 규칙 설명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접한 사용 사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FL 학습자의 교실 환경에서 문법 교육은 규칙의 일방적 전달에 머무르기보다는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문장 유형을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 설문에서 나타난 담화 맥락별 판단 차이는 학습자가 문법적 수용성을 하나의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형 구문은 학술적, 교과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보인 반면, 비정형 구문은 SNS나 일상적 담화와 같은 비공식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문법 교육이 문장의 형식적 정확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특정 구문이 어떠한 담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문법 지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활동을 넘어 구문 선택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 사용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다양한 담화 유형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변이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구분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이 because 구문을 단순한 오류로 인식하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된 점은 이러한 교육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문법 교육이 실제 언어 사용과 분리된 규범 지식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선택되는 자원으로 문법을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문법 수업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언어 사용 패턴을 발견하고 판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명시적인 규칙 설명 없이도 반복적 노출과 관찰, 그리고 유의미한 환경 제공을 통하여 학습자의 문법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교사가 문법 규칙을 명시적이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실제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문법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교수 전략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에서 담화 상황에 따라 실질적 언어 사용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연구 참여자가 특정 수준의 학습자인 한국인 EFL 학습자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숙달도나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판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인식 변화가 실제 언어 산출 및 장기적 발달로 이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노출된 자료가 디지털 담화 중심으로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나 문체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 추적 설계, 숙달도 수준별 비교, 실제 산출 자료 분석을 통해 비정형 구문 수용 과정의 발달적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maral, L., & Roeper, T. (2014). Multiple grammars and second language representa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30*(1), 3-36. https://doi.org/10.1177/0267658313519017

Androutsopoulos, J. (2014). Languaging when contexts collapse: Audience design in social networking. *Discourse, Context & Media*, *4-5*, 62-73. https://doi.org/10.1016/j.dcm.2014.08.006

Biber, D., & Gray, B. (2016). *Grammatical complexity in academic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920776

Bybee, J. (2006). From usage to grammar: The mind's response to repetition. *Language*, *82*(4), 711-733. https://doi.org/10.1353/lan.2006.0186

Bybee, J. (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750526

Bybee, J., & Hopper, P. (2001). *Frequency and the emergence of linguistic structure*. John Benjamins. https://doi.org/10.1075/tsl.45

Christensen, K. R., & Nyvad, A. M. (2024). Complexity, frequency, and acceptability.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9*(1), 1-44. https://doi.org/10.16995/glossa.10618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ttps://doi.org/10.4324/9780203771587

Croft, W.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8299554.001.0001

Diessel, H. (2013). Construction grammar and first language acquisition. In T. Hoffmann & G. Trousda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nstruction grammar* (pp. 346-364).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5396683.001.0001

Ellis, N. C. (2002). Frequency effects in language processing: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implicit and explicit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2), 143-188. https://doi.org/10.1017/S0272263102002024

Flood, A. (2014, January 8). US word of the year 2013 is 'becaus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4/jan/08/us-word-of-year-2013-because-dialect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ldberg, A. E. (2005).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268511.001.0001

Ha, Jong-Bum. (2008). A review paper on gender difference in SL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and implications. *Modern English Education*, *9*(2), 21-41.

Hilpert, M. (2013). *Constructional change in English: Developments in allomorphy, word formation, and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1139004206

Hilpert, M. (2019). *Construction grammar and its application to English*. Edinburgh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515/9781474433624

Hopper, P. J., & Traugott, E. C. (2003). *Grammaticaliz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1139165525

Kanetani, M. (2022). A grammatico-pragmatic analysis of the because X construction: Private expression within public expression. *F1000Research*, *10*, 1-40. https://doi.org/10.12688/f1000research.72971.2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Nunberg, G. (1990). *The linguistics of punctuation*. CSLI Publications.

Perek, F. (2023). Construction grammar and usage-based theory. In M. Díaz-Campos & S. Balasch (Eds.), *The handbook of usage-based linguistics* (pp. 215-232). Wiley-Blackwell. https://doi.org/10.1002/9781119839859.ch12

R Core Team. (2025).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Rickford, J., & King, S. (2016). Language and linguistics on trial: Hearing Rachel Jeantel (and other vernacular speakers) in the courtroom and beyond. *Language*, *92*(4), 948-988. https://doi.org/10.1017/9781316091142.014

Tagliamonte, S., & Denis, D. (2008). Linguistic ruin? LOL! Instant messaging and teen language. *American Speech*, *83*(1), 3-34. https://doi.org/10.1215/00031283-2008-001

Tomasello, M. (2003). *Constructing a language: A usage-based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2307/j.ctv26070v8

Traugott, E. C., & Trousdale, G. (2013). *Constructionalization and constructional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679898.001.0001

Traugott, E. C. (2015). Toward a coherent account of grammatical constructionalization. In J. Barðdal, E. Smirnova, L. Sommerer, & S. Gildea (Eds.), *Diachronic construction grammar* (pp. 51-79). John Benjamins. https://doi.org/10.1075/cal.18.02.tra

www.kci.go.kr

© 2026 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MEESO)